

두바이월드 채무상환유예 발표 후 최근동향

1. 채권단과의 협상

- 두바이월드는 채무액 260억불에 대한 채무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단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두바이 채무부는 11월 25일, 두바이 정부 소유 최대 국영 부동산개발회사인 두바이월드와 자회사인 Nakheel의 채무를 내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예(Standstill)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한 바 있음(두바이월드의 총부채는 590억불 수준이며 이중 약 260억불에 대해 채무상환일정 조정을 요청).

2. 채권단의 대응조치

- 채권단은 일단 Dubai World의 채무상환 연기 요청을 거절할 전망
 - 두바이월드 부동산 자회사인 Nakheel사의 채권단 법률대리인인 영국의 Ashurst사는 채권자의 25%이상이 채권만기일(12.14일)또는 유예기간(12.28일)내에 채무상환을 요청하는 Letter를Nakheel사에 보낼 것으로 전망
- 만일 채권단이 두바이 월드의 채무조정 제안을 거절할 경우, 채권단이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자산에 대한 권리행사 등)에 대한 성사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 특히, 관할법원인 두바이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두바이월드 자산담보 권리 행사에 대한 협조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임.

- 채권자 법률 대리인은 두바이월드의 해외유량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임.
-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유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바, Nakheel사의 이슬람채권(Sukuk) 만기일인 12,14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두바이월드는 디폴트 상황에 처함(이 경우, UAE 최초이며 사상 최대 이슬람채권의 디폴트 상황이 초래).

3. 두바이 및 아부다비 정부 입장

【두바이 정부】

- 두바이정부는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을 위해 두바이월드 소유자산을 매각할 수 있지만 정부소유 자산을 매각하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12.7)
- 두바이월드의 자산 매각시 자회사인 DP World의 핵심자산인 항만보다는 뉴욕, 런던 등에 있는 부동산이나 호텔 등이 우선 고려될 것이며, Nakheel사가 보유한 퇴역 초호화 유람선인 퀸엘리자베스 2호와 골프장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
 - 아부다비 정부는 두바이 정부의 핵심자산인 Jebel Ali Port, Emirates Airline 등의 경영권을 넘겨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두바이 재무부는 최근 “이번 두바이월드 채무 구조조정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두바이월드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 이런 관점에서 현지 경제전문가들은 두바이월드가 채권단에게 5~10년의 채무상환시기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
- 두바이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난 6월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된 두바이 재

정지원기금(Dubai Financial Support Fund : DFSF)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 두바이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두바이 재정지원기금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됨.

【아부다비 정부】

- 아부다비 정부는 당분간 두바이월드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UAE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아부다비 정부 관계자는 두바이월드의 채무조정 계획 및 채권자들의 대응을 보면서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두바이 사무소 제공>